

伽倻의 織物에 관한 研究

- 玉田古墳群의 出土遺物을 중심으로 -

박 윤 미 · 정 복 남*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Fabrics in Kaya Period

- Focused on the Fabrics of the Okjeon Old Tomb -

Yoo-mee Park · Bok-Nam J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ctoral course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fabrics attached to the remains of the Okjeon old tomb in the Kaya period were examined. Most of fabrics examined were composed of hemp and silk. Considering that silk was found in the old tomb of the Kaya period in the late 5th century and that various kinds of silk were used in the other area, silk was assumed to be used before 5th century in the Kaya period. Only the structure of the densely plain weaved fabrics were analysed as silk and the other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s could not be investigated since the examined fabrics were tightly attached to the metal remains. Although most of the examined fabrics were plain weaved, an altered structure with twill and plain weaving were found indicating that diverse weaving structures were used in the Kaya period. This indicate a certain level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aya and Silla, PaikJae, Kokuryo and weaving technique were almost similar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5th century.

Key Word : Kaya period, Okjeon old tomb, hemp, silk

I . 머리말

우리 나라의 고대 직물에 관하여는 문헌에 麻로 부터 錦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물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제직방법이나 제직기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보존되어 있는 실물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고대의 직물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야에 관하여는 직물류 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에 관한 문헌자료

도 많지 않으나, 여러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하여 당시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玉田古墳群에서 발굴한 가야의 유물에 수착(鑄着)된 직물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직물들은 총 27점으로 5-6세기의 것이며 대부분이 금속류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들이다. 유물에 직물의 흔적은 있으나 직물의 밀도나 조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현재까지 가야시대의 직물에 관해서는 문헌자료나 실물이 거의 없으므로, 옥전고분군의 유물에 수착된 직물들은 가야 직물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져 이 유물들을 통해서라도 가야의 직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玉田古墳群에 관한 概要

玉田古墳群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玉田(구슬밭)골의 주변 야산에 형성되어 있는 가야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지금은 史蹟 326號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 古墳群은 黃江유역에 존재했던 가야세력의 중심고분으로서 多羅國의 王墓域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합천과 거창 지역을 유역권으로 하는 황강의 하류 관문지역으로 낙동강 본류까지는 4km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요지로서 대외교류에 있어 창녕과 함안, 김해지역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북쪽으로는 대가야연맹의 중심지로 알려진 고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가야연맹 내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

옥전고분군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조성된 고분군으로, 고분에서는 각종 토기류를 비

롯하여 철제갑옷과 투구, 大刀 등의 武器 및 무기류와 말 투구(馬背), 재갈, 발걸이(鎧子) 등의 철제의 말갖춤(馬具)이 출토되었다. 또한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자료인 금귀걸이, 金製鬼面 裝飾品과 金銅製 冠帽, 龍鳳文環頭大刀를 비롯하여 많은 부장품이 원형을 유지한 채 출토된 가야고분 연구의 중요 고분군이다. 고분군의 규모와 출토된 화려한 부장품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이 지역에는 강력한 세력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가야는 서기전후 무렵부터 철과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던 弁韓이 모태가 되어 성립된 세력 집단을 일컫는데,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국들의 연맹 형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야연맹체 또는 연맹왕국 “가야”라고 하며, 지리적으로는 낙동강을 둘러싼 東, 西岸에 폭넓게 자리잡고 성장하였다.³⁾

문헌의 기록에는 가야(加耶, 伽耶, 伽倻) 외에 구야(狗邪, 拘邪), 가라(加羅, 加良), 가락(駕洛), 임나(任那) 등의 이름이 전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東으로는 黃山江(낙동강 하류), 南으로는 滄海(남해안), 西로는 지리산, 北으로는 가야산의 남쪽을 경계로 하였다. 가야의 역사는 3세기 말 4세기초에서 5세기초까지의 전기가야와 5세기초에서 6세기 중엽까지의 후기가야로 나누어진다. 전기에는 낙동강 하류의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가야에 속하는 국가들로서는 5가야 혹은 6가야, 가야7국, 浦上8국, 임나10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헌상에 전하는 서부경남에 위치한 가야소국으로는 안라국(安羅國·함안), 고차국(古嵯國·고성), 사물국(史勿國·사천), 자타국(子他國·진주),

1) 《陝川 玉田古墳群》,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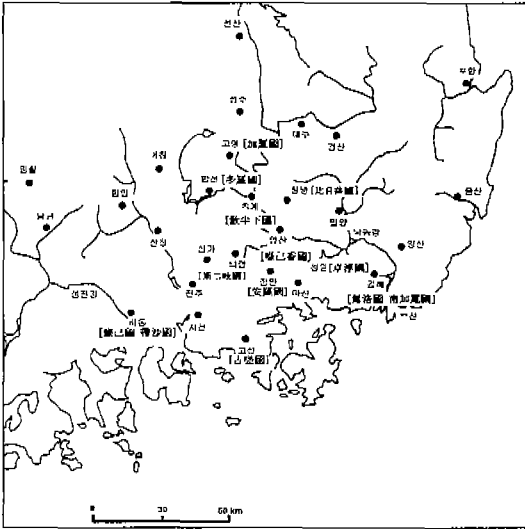
2) 《서부 경남의 선사와 고대》,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p.27

3) 《伽倻 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24-25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4, pp.67-68

걸찬국(乞漚國·산청), 열례국(掄禮國·거창), 서이국(斯二岐國·의령), 졸마국(卒麻國·함양), 다라국(多羅國·합천) 등이 있다.⁴⁾

다음의 <그림 1>은 6세기 무렵의 가야의 분포도이다.



<그림 1> 6세기 무렵의 가야의 분포도
(《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p.29)

Ⅲ. 加耶의 製織

우리 나라의 고대에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後漢書, 三國志, 팔괘 등의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麻로부터 縑, 羅, 錦 등의 고급 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물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加耶에 관하여서는 당시 어떠한 직물들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발굴된 고대의 유물을 고찰해 봄으로 당시의 製織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吉林省에서 기원전 11세기에 해당하는 古

朝鮮 유적인 星星哨 石棺群에서 경. 위사 밀도가 114-115x8-9올/cm인 平織의 毛와 경위사 밀도가 20x11올/cm인 麻가 출토되었는데, 모직물은 중국에서 발굴된 그 당시의 중국 모직물보다 더 섬세하다. 또한 고구려에 해당되는 集安 長川2호분에서는 錦과 麻의 殘片이 출토되었다.

중국 吉林省에서는 扶餘人의 墓로 추정되는 帽兒山墓에서 직물이 발굴되었는데 平織의 絹, 經錦 그리고 方孔紗가 출토되었다. 그 중 한 점은 한 줄의 경사에 2合捻絲가 함께 직조된 것으로 이것은 이미 이 시기에 并絲와 合捻絲를 만들 수 있는 방적 기술이 있었음을 알려준다.⁵⁾

慶南 義昌 茶戶里 일대에서 原三國時代 초기부터 가야시대에 이르는 고분들이 발굴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1호분에서 섬유질의 재료로 두 가닥을 꼬아 만든 상당한 길이의 노끈이 출토되었다.⁶⁾ 고대에는 이와 같이 섬유질의 재료를 생활 자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라시대의 5세기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경주의 98호분에서 직물류가 출토되었다. 北墳에서는 15점의 직물이 출토되었는데 麻, 絹등이 대부분이다. 그 중 銀盒, 金製容器 위의 직물은 경위사 100x120올/2.5cm의 변화능직의 小文綾이다. 南墳에서도 대부분이 麻와 絹인 직물이 25점 출토되었다. 그 중 밀도가 경위사 124x106올/2.5cm의 2/1 2/1 1/1 1/1의 완전조직을 갖는 변화능직이 있다. 이 직물은 출토 위치가 金製袴帶 부근인 것으로 보아 과대용 직물인 綾으로 보인다.⁷⁾

또한 5-6 세기의 고분으로도 알려진 경주 천마총에서는 20여片的 직물류가 발굴되었는데 평직의 麻와 絹, 麻織物로된 布紡羅, 綾織(2/1)의 絹이 있는데, 그 중에는 浸染, 捺染, 夾縵에 의해 염색되어진

4) 《서부경남의 선사와 고대》, 앞의 책, p.26

5) 심연옥. 민길자, “中國 東北지역에서 出土된 古朝鮮, 扶餘, 高句麗시대의 織物 研究”, 《服飾》 22호, 1994, pp.62-29

6) 李健茂 외 3인, “義昌 茶戶里遺跡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 제1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9, p.26

7) 金相溶, “車騎袴帶에 쓰이던 古代 織物”, 《직물검사》 제5년 1호,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77, pp.13-16

것으로 여겨지는 직물이 있다. 능직의 견은 밀도가 대개 경위사 70-80x80-120올/2.5cm 정도이다.⁸⁾

6세기경에 축조된 신라 豪族의 墳墓로 추정되는 慶南 梁山의 夫婦塚에서는 斜格子文이 있는 小豆色の 綾, 金銅寶冠내의 綠色의 絹, 金銅寶冠 冠帽의 내면에 남아있는 茶色の 絹, 紗帽의 殘缺, 성긴 울의 麻布 殘缺 등이 출토되었다.⁹⁾

경주 불국사 석가탑(建立年代 A.D.751)의 舍利孔안에서 비단에 싸여진 金銅舍利外函과 그 밑에 비단에 墨畵 紙片이 발굴되었다. 舍利函안에는 苧布에 싼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絹布에 싼 銀製 舍利壺, 그리고 苧布로 싼 香木 등 여러 곳에서 絹, 苧 등의 섬유류가 발견되었다.¹⁰⁾

百濟 무녕왕(AD. 462-523)의 능에서는 청동제 다리미의 바닥에 흰색의 고운 苧布 조각들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한다.¹¹⁾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이전까지는 大麻와 苧麻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靱皮纖維와 靱皮纖維織物을 지칭하는 말로는 “麻”와 “布”등이 있는데, 오늘날 “麻”라 하면 일반적으로 大麻를 지칭하는 데 비해 당시에는 麻가 靱皮纖維 一般을 지칭하고 있다. “布”는 초기에는 靱皮纖維織物 一般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다가 차차 모든 직물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통일신라 이후 “苧”라는 명칭이 등장함으로써 인피섬유직물에 관해 어느 정도 구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문헌상으로는 통일신라 이후에 “苧”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만,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苧麻로 5세기경에 苧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대 각국의 고분에서 大麻, 苧麻, 絹, 綾, 羅, 錦 등의 다양한 직물들이 출

토되었으며, 변화직의 직물이나 錦 등은 고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작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玉田 M1호분에서는 신라계통의 유물인 扁圓魚尾形 芥葉, 金銅裝袴帶 등이 출토되었으며¹³⁾, M3호분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金銅裝 투구와 百濟系의 小札冑, 그리고 大加耶系의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¹⁴⁾ 이것은 가야가 신라, 고령의 대가야, 백제, 고구려와 문화의 교류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의 교류로 인하여 製織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 당시의 織物의 製織狀況은 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IV. 綉着織物에 관한 考察

1. 織物의 綉着狀態

조사한 유물들은 대부분 금속에 수착되어 있으며, 수착된 상태도 금속과 같이 단단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보존처리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직물과 유물과의 분리가 어려워 직물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몇 점은 분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수착된 위치는 한 유물안에 몇 종류의 직물이 앞과 뒤에 수착되어 있거나 겹쳐져서 수착되어 있기도 하다. 23호분의 도면번호 37-3과 도면번호 37-4는 한 종류의 金銅冠帽이지만 37-3에는 麻가 수착되어 있으며, 37-4에는 견으로 여겨지는 치밀한 직물이 수착되어 있었다. M1호분의 袴帶飾 金具(도면번호 57-1)는 앞뒤에 같은 종류의 직물이

8) 金相濬, “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 纖維技術”, 《직물검사》 2권 2호,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74, pp.2-4

9) 《梁山 金鳥塚, 夫婦塚》,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pp.246-273

10)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6, pp.38-43

11) 《무녕왕릉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4, pp.40-41

12) 李淳美, “우리나라 靱皮纖維織物에 관한 文獻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p.10-12

13) 《陝川玉田古墳群III》, 앞의 책 pp.223-224

14) 《陝川玉田古墳群II》, 앞의 책, pp.218-219

수착되어 있는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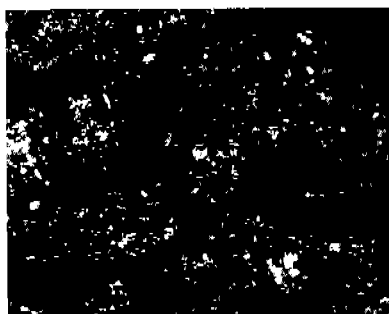
2. 鏽着織物の 考察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분명, 고분의 年代¹⁵⁾, 유물 명 등은 경상대학교박물관의 보고서와 같이 하였다.

1) 23호분¹⁶⁾

23호분은 5세기 전반기의 고분이며 4점의 유물에서 직물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경상대학교박물관 보고서의 투구(도면번호 22-66)의 안쪽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은 平織이며 밀도는 24x16올/cm인데, 직물의 형태나 밀도로 보아 麻로 짐작된다<그림 2>.



<그림 2> 22-66 확대도

도면번호 37-3과 37-4는 金銅冠帽의 片으로, 37-3은 右側板이고 37-4는 左側板이다. 도면번호 37-3은 직물이 안쪽에 수착되어 있는데, 밀도는 12x12올/cm이며 위사는 경사의 2배 정도의 굵기의 실을 사용하여 직조한 麻이다<그림 3>.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官帽안에 덧대었던 布라고 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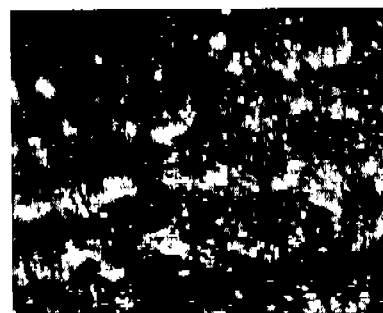
金銅官帽의 片(도면번호 37-4 : <그림 4>)은 직

물이 관모의 안에 수착되어 있으며 밀도가 65x60올/cm로 치밀한 平織의 직물이다.

투구의 伏鉢¹⁸⁾(도면번호 21-1)에는 직물이 걸 부분 수착되어 있는데, 밀도가 62x50올/cm인 평직의 직물이다.



<그림 3> 37-3의 확대도



<그림 4> 37-4의 확대도

2) M1호분¹⁹⁾

M1호분은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고분으로 모두 13점의 유물에 수착직물이 있다.

투구A(도면번호 17)와 투구B(도면번호 18), 伏鉢(도면번호 18), 투구형 철기(도면번호 24-2)에 수착된 직물은 모두 麻이며 밀도는 각각 44x15, 22x10, 18x14, 25x26올/cm이다.

鬼面紋金具片(도면번호 24-11)에는 작은 직물이

15) 趙榮濟, "陝川 玉田古墳群의 墓制에 대하여", 《陝川 玉田古墳群》,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p.70

16) 《陝川 玉田古墳群 V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17) 《陝川 玉田古墳群 VI》, 앞의 책, p.76

18) 투구의 맨 위의 등판 부분으로 그 위에 깃털이나 기타 장식물을 꽂기도 한다.

19) 《陝川 玉田古墳群 I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붙어 있는데 위낙 크기가 작아서 밀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으나 굵기가 약 0.45mm와 0.63mm의 서로 직조한 麻이다.

盛矢具A(도면번호 35-1:화살 통)와 성시구E(도면번호 37-1)에는 밀도가 35x13과 12x10의 평직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데 麻로 추정된다.

성시구E(도면번호 37-2)에는 2종류의 평직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데, 하나는 밀도가 70x30올/cm인 치밀한 직물이며 다른 하나는 17x15올/cm의 麻이다.

성시구(도면번호 38-9)는 밀도가 15x15올/cm의 麻가 수착되어 있으며, 유자이기(有刺利器²⁰⁾: 도면번호 41-3)에는 밀도가 60x15올/cm인 비교적 치밀한 평직인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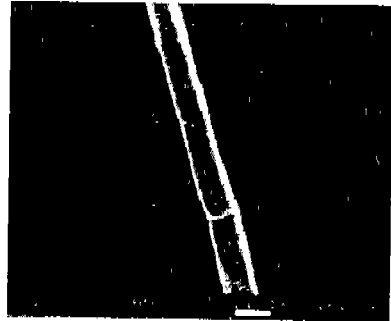
등자(鏡子²¹⁾:도면번호 52-1)와 운주(雲珠²²⁾:도면번호 56-2)에는 평직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鈐帶飾金具(도면번호 57-1, <그림 5, 6>)에는 앞, 뒤에 밀도 22x16올/cm의 같은 종류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데 실의 굵기는 경, 위사가 약 0.37mm x 0.53mm이며 SEM(走査型 電子顯微鏡)으로 촬영해 본 결과 측면 곳곳에 뚜렷한 마디가 보이는 것으로 大麻임을 알 수 있었다. 경주 98호분의 北墳에서 鎗製鈐板의 纖維質이 발굴되었는데, 이 섬유는 麻로서, 경·위사 밀도가 42x19올/inch이며, 실의 굵기는 경x위사 0.67x0.58/mm이었다. 이러한 鈐帶는 金屬飾板을 付飾한 belt보 가죽(革) 또는 綾布로 만



<그림 6> 57-1 확대도

들어지며, 그 위에 垂飾하는 鈐板을 달게 되어 있다²³⁾라고 한다. 도면번호 57-1의 직물은 수착된 상태로 보아 鈐帶用 직물이며, 과대용 직물로 大麻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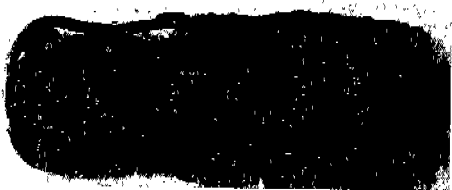
<그림 7> 57-1(900배 확대)

3). M3호분²⁴⁾

M3호분은 5세기 1/4분기의 고분이며, 7점의 유물에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경갑(頸甲²⁵⁾:도면번호 15-1)에는 밀도가 8x8올/cm인 매우 상근 직물이 있다.

유자이기(도면번호 13)에는 앞, 뒤로 몇 가지의 직물들이 수착되어 있다. 그 중 3매능직(2/1)의 직물<그림 8, 9>이 있으며, 4매능직과 평직을 혼합하여



<그림 5> 鈐帶飾金具(57-1)

20) 새 모양의 장식이 달린 儀器중의 하나이다.

21) 말에 오를 때나 말 위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로 디디는 馬具의 하나이다.

22) 말띠꾸미개끈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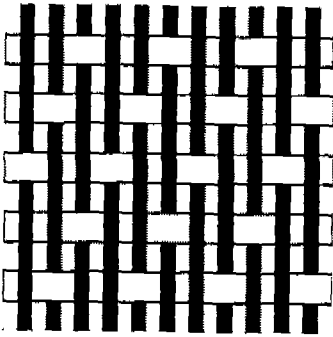
23) 余相裕, 앞의 논문, pp.12-13

24) 《陝川 K14古墳群 II》,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25) 갑옷에서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마치 스탠드 갑과 비슷한 형태이다.



<그림 8> 43(3매능직)



<그림 9> 43(3매능직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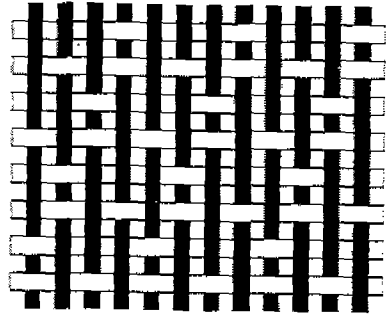
직조한 일종의 변화직의 직물이 있다<그림 10, 11: 본 논문에서는 변화직으로 명시함>. 오늘날에도 이러한 조직을 이용한 製織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마령(馬鈴: 말방울, 도면번호 53-6과 53-7)에는 평직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으며, 도자(刀子: 작은 칼, 도면번호 27-2)에는 밀도는 측정하기 힘들나 치



<그림 10> 43(변화직)

밀한 평직의 직물의 흔적이 있다.



<그림 11> 43(변화직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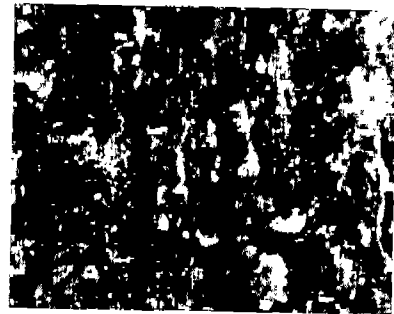
4) 28호분²⁶⁾

28호분은 시기적으로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고분이며, 한 점의 유물에 수착된 직물이 있다. 도면번호 77-162(말감옷E-3)에는 밀도가 25x15인 평직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5) M4호분²⁷⁾

M4호분은 6세기 1/4분기에 해당하는 고분이며, 성시구(도면번호 39-107(1)) 한 점에 몇 가지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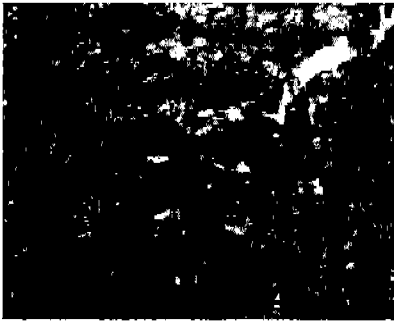
앞에는 2가지의 직물이 겹쳐서 수착되어있는데, 위에는 M3호분의 유물 43과 같은 변화직의 직물이 있으며<그림 12>. 밑에는 경사 2올마다의 간격이 넓은 평직을 변화시킨 변화평직이 있다<그림 13, 14>. 유물의 뒤 부분에는 평직의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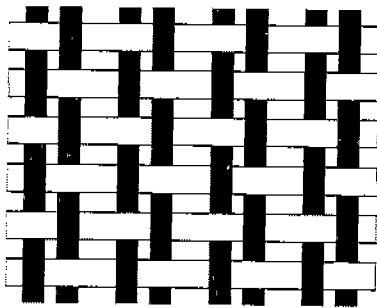
<그림 12> 39-107 변화직

26) 《陝川玉田古墳群 VI》, 앞의 책

27) 《陝川玉田古墳群 IV》,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그림 13> 39-107 변화평직



<그림 14> 39-107의 조직도

6) 85호분²⁸⁾

85호분은 6세기 1/4분기의 고분으로, 한 점의 유물에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95-321은 불명철기(不明鐵器²⁹⁾인데, 이에 수착된 직물은 밀도가 15x15올/cm인 평직이다.

<표 1>은 위의 직물들을 정리한 것인데 직물의 종류나 밀도는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표시하였다.

V. 맺음말

본 조사는 가야시대 고분인 옥전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에 수착되어 있는 직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직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麻와 絹이 대부분이었으며, 5세기 후기의 고분에서부터 絹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絹 종류의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가야에서도 이미 그 이전부터 絹

<표 1> 玉田古墳群 유물의 수착직물

고분명과 年代	보고서의 도면번호	유물명	직물의 종류	직물의 조직	밀도 (경사x위사/cm)	비고
23호분 (5C 전반기)	22-66	투구	麻	平織	24x16	안쪽에 수착
	37-3	金銅冠帽	麻	平織	12x12	안쪽에 수착
	37-4	金銅冠帽		平織	65x60	안쪽에 수착
	21-1	金銅裝투구(伏鉢)		平織	62x50	겉에 수착
M1호분 (5C 3/4)	17	투구A	麻	平織	44x15	
	18	투구B	麻	平織	12x10	
	18	伏鉢	麻	平織	18x14	
	24-2	투구형철기	麻	平織	25x16	
	24-11	鬼面紋金具片	麻	平織		
	35-1	盛矢具A		平織	35x13	
	37-1	盛矢具E	麻	平織	12x10	
	37-2	盛矢具E	麻	平織 平織	70x30 17x15	
	38-9	盛矢具	麻	平織	15x15	
41-3	有刺利器	平織		60x15		

28) 《陝川玉田古墳群 IV》, 앞의 책

29) 용도를 알 수 없는 철기를 말한다.

	52-1	鏡子		平織	14x10	
	56-9	雲珠		平織		
	57-1	鈎帶飾金具	大麻	平織	22x16	앞뒤에 같은 직물이 수착
M3호분 (5C 4/4)	15-1	脛甲	麻	平織	8x8	
	17	투구A		平織	52x12	
	18	札甲A		平織		
	43	有刺利器	絹	3매綾織	50x36	앞뒤에 몇 가지 직물이 수착
				변화직	55x32	
				平織	20x20	
	53-6	馬鈴		平織	25x25	
53-7	馬鈴		平織	20x20		
27-2	刀子		平織		치밀한 직물이 수착	
28호분 (5C 3/4)	77-162	말갑옷E-3		平織	25x15	
M4호분 (6C 1/4)	39-107(1)	盛欠具		변화직 변화평직 平織	50x30 35x25 35x26	앞뒤에 몇 가지 직물이 수착
85호분 (6C 1/4)	95-321	不明鐵器		平織	15x15	

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조사한 직물 중 평직이라도 직물의 밀도가 치밀한 것은 絹으로 여겨진다.

2) 직물의 조직에 있어서는 평직이 대부분이지만, 4매능직과 평직을 혼합하여 직조한 일종의 변화직, 3매능직 그리고 평직을 변화시킨 변화평직의 직물이 있으므로 가야에서는 당시에 다양한 조직을 이용하여 製織한 것을 알 수 있다.

3) 옥전고분군에서는 신라, 대가야, 백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의 교류는 당시의 織物의 製織狀況이 가야 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金相溶, “車馬鈎帶에 쓰이던 古代 織物”, 《직물검사》 제5권 1호,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77
- ———, “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 纖維技術”, 《직물검사》 제2권 2호, 한국직물시험검사소, 1974
- 심연옥, 민길자, “中國 東北지역에서 出土된 古朝鮮

- 扶餘, 高句麗시대의 織物 研究”, 《服飾》 22호, 1994
- 李健茂 외 3인, “義倉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제1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9
-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4
- 李淳美, “우리나라 靑皮纖維織物에 관한 文獻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趙榮濟, “陝川 玉田古墳群의 墓制에 대하여”, 《陝川 玉田古墳群》 -試掘調査 報告書-,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 《伽倻 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91
- 《무녕왕릉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4
-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76
- 《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1996
- 《서부 경남의 선사와 고대》,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 《梁山 金烏塚, 夫婦塚》 古蹟調査報告 第十九冊,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 《陝川玉田古墳群Ⅱ》,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 《陝川玉田古墳群Ⅲ》,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 《陝川玉田古墳群Ⅳ》,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 《陝川玉田古墳群Ⅴ》,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 《陝川 玉田古墳群》,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